

인도네시아 교회지도자들의 한국 농촌교회 방문기

Yahya Tirta Prewita (목사, 자바 기독교단총회
지도력개발 임원)
이 규 대(목사, 인도네시아 선교사)역

한국 농촌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새롭게 가지게 된 꿈과 영감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방문 소감을 시작하려한다.

지난 2004년 7월 2일-23일(3주간), 7명의 목사와 1명의 장로로 구성된 자바기독교단과 남부수마트라기독교단소속 교회지도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교회들을 방문하고 배우기 위하여 한국교회를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 방문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규대 선교사와 예장(통합)측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글은 이번 방문 팀 모두의 관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부족한 점은 저 개인에게 있음을 밝힌다.

이번 한국에서의 3주간 방문은 만남과 대화 그리고 주최측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빠듯한 시간들이었다. 서울과 그 주변 교회들은 각자 사역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락교회, 장석교회, 온누리교회, 신양교회, 김포제일교회, 다일공동체의 도시빈민사역, 사랑의 즐잇기와 야곱의 우물의 사랑의 나눔 사역(Holy Business), 도시

교회 사역에 이어 농촌교회들을 방문하였다. 생산자공동체, 생협, 노인사역, 공부방사역, 가정교회사역, 의료생협, 새누리 공동체의 도시교회와의 유기농산물 도농직거래사역, 농촌교회의 농민들을 위한 연대와 투쟁들을 직접 보고 참여할 수 있었다.

도시교회의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수와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 농촌교회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농촌선교와 관계가 깊은 가나안 농군학교와 풀무학교, 백운교회의 환경학교도 방문하였다. 우리 방문팀이 원주 한경호 목사의 '농촌선교교육원'(Workshop Room for Rural Mission) 완공예배에 맞추어 방문한 것은 큰 행운이었다. 예장(통합) 총회 산하 신학대학 중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장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등 세 곳도 방문하였다. 또한, 서울국립민속박물관과 경복궁, 창경궁, 코리아하우스에서의 전통 민속 공연, 전주 민속 박물관에서의 전통음악공연을 돌아 볼 수 있었고, 휴전선 근처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기도 하였다. 서울서남노회 임원들과의 만남과 총회 각 부서 방문, 기독교보와의 인터뷰도 있었다.

무엇을 배웠나?

매우 빡빡한 방문일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농촌선교와 관련된 것 가운데 우리가 배운 많은 교훈들 중, 다음의 네 가지 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 1) 역사에 대한 존중
- 2) 현 사역의 필요와 문제점에 대한 응답
- 3) 조직화의 중요성
- 4) 농촌선교를 위한 성서적 비전과 선교

1) 역사에 대한 존중

우리가 방문하는 곳마다 맞이하는 분들은 언제나 사역과 기관의 초기 역사부터 이야기했다. 1884년 시작된 예장(통합)의 역사, 신

학교육 기관, 노회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있는 사역들의 역사 이야기들.

특별히 농촌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한경호 목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한 목사는 동학운동 속의 농민투쟁의 역사들과, 조선 말기 일제의 침략과 한국 강점, 군사독재시대 한국에서 시작된 근대화 과정 속의 농촌의 도전들, 민주화된 한국민의 삶 속에 있는 새로운 이슈들, 현재까지 점점 더해가고 있는 WTO체제 중심의 세계화 경제의 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었다.

초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수카르노는 한시라도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대국은 애국 선열들을 잊지 않고 깊이 존경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내가 보기에 한국교회의 형제들은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것을 현재 민족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선교에 활력으로 삼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역사에 깊이 박은 뿌리는 그 위에 자란 나무를 지탱해주고,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한다.

2) 현 사역의 필요와 문제점에 대한 응답

예장(통합) 농촌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다양함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미 있는 것을 새로이 해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역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산업화는 농촌교인들을 모든 면에 뒤떨어지게 만들었다. 장기간에 걸쳐 자립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농촌교회를 향한 도시교회의 도움은 곧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영락교회의 새누리공동체와 함께 하는 도·농직거래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었다. 도시교회 교인들은 농촌교인의 유기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질 좋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농촌교인들에게는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다.

메주콩으로 전통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드는 전남 고흥의 매곡교회는 정부나 시장수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의 콩을 수매함

으로써 농민들이 중간도매상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도록 돕고 있었다. 농민회 조직이나 신용협동조합 및 공동체 설립에 있어서 농촌 교회 목회자와 교회의 주도적 역할은 육체 아니면 영혼, 천국 아니면 이 세상이라는 이원론적 구별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다. 이러한 구별은 전통적인 교회가 농민들에게 사역할 때에 종종 장애가 되고 있다. 정도성 목사는 “농민들을 섬기고 일한다면 농촌 교회는 존경을 받는다”고 간증했다.

한국의 농촌교회는 소외된 아이들, 노인들을 섬기는 사회봉사에서 더 나아가 이들을 위한 섬김의 집을 만드는 데까지 나아갔다(풀곡교회에서 시작된 최용석 목사의 평안의 집). 신양교회가 하고 있는 어려운 도시빈민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 사역, 다일공동체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천사병원과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밥퍼 사역, 김수영 목사가 하고 있는 대체의학, 자연의학 사역은 거제 다대교회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건강과



서울영락교회 새누리장터에서 농산물을 살펴보고 있다.

함께 육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센터가 되고 있었다.

3) 조직화의 중요성

한국 교회는 팀 내의 협동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질서 있고 잘 짜인 사역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조직화는 지역교회나 작은 공동체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교단이나 기독교교회협의회(NCC) 차원, 농민회나 한살림 차원의 사역의 필요에 큰 동력이 되고 있었다. 본이 되고 격려할 줄 아는 지도력은 교회나 일반 사역 조직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역이 발전함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사례비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은 사역의 질이나 진실함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 사역들이 동참하는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올바른 조직화는 노회나 총회 차원의 정치적인 결정들이 지역교회의 여러 사역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고 오히려 주변의 어려움과 상황에 맞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교인들을 인도해주는 듯했다. 권력과 권한을 오용하지 않으므로 발전하는 조직은 교회가 현 사역의 도전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한다.

예장 농목은 작지만 통합교단 내에서 농촌 목회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소리 낼 수 있는 조직인 것 같았다. 계간지인 『농촌과 목회』를 이미 5년 동안 발행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 선교의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단체와 함께 하는 기독교농민회는 교회가 민족과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고 분명한 의사를 표시할 때 힘이 된다.

4) 농촌선교를 위한 성서적 비전과 선교

‘21세기농촌선교회’의 한경호 목사와 함께 한 3박 4일간의 일정은 짧긴 하였으나 그와 함께 가진 토론과 성서 연구는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농촌이라는 상황(context)에서 실천하

고 있는 농촌사역들이 정의, 해방, 모든 생명체를 위한 구원이라는 주제로 해석될 때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이러한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민중 가운데서 일할 때 어떻게 성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 성서의 본문들은 이미 균형을 잃은 땅 소유권을 위해 투쟁하는 정의의 비전을 보여주었으며, 희년은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팔려버린 땅에 대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위한 희망을 가르쳐 주었다. 하나님은 이 지구의 주인이시며, 노아의 방주는 모든 생명체에게 구원의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또한 가르쳐 주었다. 민중의 해방 전통의 상징으로써의 모세전승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언제나 엘리트 전승으로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런 국가 이데올로기인 다윗 전승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토론하였다.

우리는 또, 어떻게 농민의 영성인 온유, 인내, 소망이 가꾸는 땅과 깊이 연결되어있는 가를 배웠다. 이러한 영성을 가꾸고 자라게 하는



원주 농촌선교교육원을 방문하여 한경호 목사와 토론하고 있는 모습

곳은 농촌에 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사역자는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농촌에서 목사가 된 후 농사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버섯재배에 성공한 김광욱 목사의 이야기는 농촌 일은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그림처럼 보여주었다.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피조물에게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등, 정의, 피조물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투쟁해야 한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위에 있는 작은 가게들을 문닫게 만드는 대형슈퍼마켓에서 물건 안사기, 사치품 안사기, 반친환경 물건 보이콧하기, 유기농업을 통하여 더욱 건강한 대체 식량 만들기, 가정쓰레기를 잘 처리하여 환경 회복하기, 에너지 절약, 농사에 화학적 살충제, 제초제 거부하기 등. 많은 예상 농목 소속 목회자들이 황토나 풀 등 천연 염색한 농민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이지만 농촌 선교과 비전은 그 속에 더욱 깊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 농촌사역 상황에 대한 제고

우리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돌아 왔을 때 신문들과 매스 미디어들은 슬라웨시 부얏 만(Buyat 만)의 수은 오염 뉴스로 떠들썩했다. 1996년부터 뉴몽(Newmont) 탄광회사가 버린 탄광폐기물이 부얏만으로 버려졌다. 많은 주민들이 혈액 중 수은 농도가 한계치를 넘는 중금속 오염으로 고통 당하고 있었으며, 이미 종양 같은 종기들이 피부에 돌아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덴버(Denver)의 뉴몽 탄광회사 측이나 지방 정부, 위생성, 환경성은 환경오염을 막을 어떠한 단호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농민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이 선진 경제 산업국가로 나아가는데 희생당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투쟁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계속 희

생당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도시 및 산업 개발 부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계속 무시당해온 자신들의 상황을 고치려는 정치적 의지가 매우 약하다.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왕들에 의한 땅 소유와 식민의 역사는 자바에서 농민 한 가구 당 1/3 정도의 좁은 땅을 갖고 농사짓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 땅 소유에 관한 법령이 한 때 공포되었지만 대규모 농장 주인들과 민간 산림 업자들을 비호하는 군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실시되지 못했다.

해방 후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컸던 농민조직인 '인도네시아 농민전선'(BTI)은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하부조직이라는 이유로 1965년 이후 해체되었다. 1965년의 비극적 사건으로 수십만 명이 희생당해 죽었고 수백만 명이 법적 절차도 없이 감옥에 갇혔다. 이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독재정권의 시작이었다. 1998년 5월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뒤 비로소 농민운동 조직과 민중운동 조직이 가능해졌다. 수하르토 정부 시절 그렇게 자랑했던 경제 발전의 결과는 모래성 같았다. 1997년 IMF 위기는 수하르토 정권을 무너뜨렸다. 루피아 화폐 가치는 폭락했다. 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와 외국부채 위에 세워진 산업, 경제는 무너져버렸다. 풍부하던 오일과 산림원자재는 많은 민중들의 복지에는 관심 없는 국내의 소수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법질서의 혼란, 경제 몰락, 정부 관료들의 부정 부패 등 총체적 위기는 민중들의 불신과 저항을 가져왔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혼란기 동안에 엄청난 열대림은 대머리가 되고 강과 바다는 오염되고 있다. 현재 GNP는 년 700불인데 농민들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나눔

필자는 1992년 이래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 워노기리군 푸르완토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전체 주민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는 0.5%밖

에 되지 않지만 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하여 주변의 주민들과 농민의 복지를 위하여 투쟁하는 기관으로써의 교회의 존재는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1994년 이래로 유기농 농민 결성, 신협, 법률적 도움을 위한 훈련, 지도력 개발 등의 농촌 섬김 사역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IMF 위기를 당하고 수하르토가 하야하고 새 정부가 들어선 초기, 교회 당회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국민 개혁운동에 위협을 감수하면서 깊이 뛰어들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전통적인 교회 사역에 다시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어 교인들이 미처 대처할 수 없었다. 안락함을 버리고 일반 주민들을 섬기기 위하여 뛰어들 만큼 교인들의 신학적인 이해가 미처 준비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교회 당회 내의 의견 분열은 마침내 교회 내에서 농민 섬김 사역들을 감당해오던 몇몇 분들로 하여금 교회라는 것밖 밖에서 조직을 만들게 하였다. 하지만 교회 섬김 사역의 비전과 선교정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오히려 이 조직은 계속 발전하였고, 신협과 농민단체들을 통해 농민 수입 증대를 꾀할 뿐 아니라 농민 조직에도 협력을 이끌어내어 일반 주민들과 이슬람 사람들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밖 조직을 통하여 수입 증대 사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고, 농민들의 자존심을 키우며 정부나 농산물 구매자들에 대한 가격 협상능력을 키웠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농촌교회가 어떻게 주변의 농민들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 응답하는가를 보면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이윽고 나아가 먼저 가난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섬기려는 생각은 농촌을 세우고 농민의 필요에 응답하려는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 농촌교회 사역과 삶 속에서 나타난, 예수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영감과 희망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한국의 농촌과 농민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사역이니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 인도네시아의 일터는 크고 넓지만 일꾼은 더욱 적기 때문이다. 農